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회순 박순철

화순 농기계 사업소 휴일에도 '문 활짝'

바쁜 농사철 맞아 휴일 확대 운영



화순군이 농민의 편의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으로 농사가 시작되는 농사철을 맞아 11월 30일까지 휴일에도 임대사업소를 운영한다. 또 평일에는 1시간 일찍 문을 연다.

임대사업소는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또,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문을 연다.

군은 고가의 농기계 구매에 따른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의 기계화 비율을 높이기 위해 임대사업을 확대해 왔다. 현재 임대사업소 2곳(본소, 분소)에서 65종 380

대의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다.

고령농과 영농 취약계층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임대 농기계 배송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배송서비스에서 고정식 품종선 선별기는 제외된다.

군은 올해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 농기계 11종 34대를 새로 구매해 노후 임대 농기계를 교체할 계획이다. 농기계 기종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임대 농기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결정할 예정이다.

농기계 임대 자리는 화순군에 주소지 또는 농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관계자는 "계속해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을 확대해 농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며 "농민에게 농기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사고율 제로(Zero)'를 위해 농업인들이 안전사용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곡성군, '꿀벌 강군육성 위한 첫걸음' 양봉교육 성황



곡성군은 지난달 27일 목사동면에서 양봉 농업인 48명을 대상으로 꿀벌 강군육성을 위한 양봉교육을 실시해 참석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강의는 오전 이론 교육과 오후 현장교육으로 이루어졌다. 강의에 나선 오백영(前, 이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강사는 월동포장의 종류와 방법 등 사계절 봉군관리 요령 대해 자세하게 안내했다.

오후 현장교육에서는 월동 전·후 봉군관리와 계상 올리기 등에 대한 하우 등을 시연을 통해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봉장관리법 등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실무적 궁금증을 해소해 줌 교육생들의 만족감이 높았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호응도 좋고 참여도 적극적이다. 양봉 뿐 아니라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품목의 교육을 진행해 작별별 재배기술 향상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곡성=김광희 기자

영암군, 농기계임대복부사업소(복부분소) 개소

북부지역 농업인 원거리 농기계임대 불편 해소

영암군은 2월 28일 시종면 민수리 농기계임대복부사업소에서 시종면, 도포면 등 관내 북부지역 농업인과 이장, 관계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농기계임대복부사업소는 시종면 달보논길 19번지 내에 농기계보관창고, 사무실 등 총 585㎡의 규모로 급근 1월에 공사를 마무리했다.

복부분소는 관내 북부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 밭작물(고구마, 콩 등) 수확기, 파종기 등의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관리기계의 24종 138대를 비치하여 맞춤형 농기계임대사업소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임대농기계 사용 문의와 사전 예약 신청은 인터넷 (<https://www.amrbkr/yeongam>) 또

는 전화(470-6658)를 통해 가능하며 운영방법은 본점 운영 방법과 동일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관내 북부지역 농업인들의 원거리 임대편을 해소하고 밭작물 농작업기계를 저렴한 가격에 임대 사용함으로써 농기계구입 부담 감소와 농업경쟁력 향상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여수시, 찾아가는 '농기계 수리 교육'

여수시는 6일부터 3일간 교통이 불편한 농촌마을을 찾아가 '농기계 수리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교육일정은 ▲6일 소라면 사곡리, 읍촌면 상봉 ▲7일 화양면 창무, 화동 ▲8일 돌산읍 금천, 둔덕동 용수마을이다.

교육은 하루 두 개 마을을 오전(10:00~13:00)과 오후(15:00~18:00)로 나눠 진행한다.

시는 수리 교육과 함께 농기계 사고 예방 교육, 후방 안전반사표지판 부착 서비스를 병행한다. 또 3만 원 이하 농기계 부품은 무상으로 교환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농업인의 농기계 점검·수리 능력을 높이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지역 농업인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6개 마을을 방문해 경운기 등 농기계 50여 대를 점검·수리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진도군 봄동 단맛 좋아 '인기'



따뜻한 봄철 명물인 봄동 배추(일명 떡배추)가 소비자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진도군이 밝혔다.

진도군의 대표적 농산물인 봄동 배추는 줄기와 잎 부분이 부드러워 맛이 좋아 된장국이나 나물무침, 김절이 등으로 요리하면 구수하고 진한 향을 내 전국 소비자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다.

특히 한겨울 해풍을 맞고 자란 달콤한 배추인 봄동은 지금이 최고 전성기로 지금 진도군은 제철 봄동을 수확하느라 농가들은 분주한 손길을 보내고 있다.

봄동은 남다 어른이 두 손을 펼쳐 었었을 때의 크기 정도가 최고 상품으로 잎이 뻗뻗하지 않고 부

드러워야 결절이로 사용할 때 씹는 맛이 아삭 아삭하다.

늦가을 씨를 뿌려 추운 겨울을 이겨낸 겨울 배추인 진도 봄동은 칼슘과 칼륨, 인이 풍부해서 빈혈·동맥 경화 예방에 좋다.

봄동 재배 농가들은 "차가운 겨울을 견디고 자란 봄동은 지금 단맛이 가장 좋을 때이다"며 "달콤 지근한 맛과 아삭아삭한 식감의 진도 봄동이 봄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군은 전국 봄동 주산지로 전체 330농가가 163ha에 봄동을 재배해 연간 7,336톤을 생산, 18억 여원 가량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겨울에 나고 자라 잎이 옆으로 활짝 퍼지는 진도 봄동은 태생부터 남다르다"며 "겨울철 대비된 된사리도 보약 삼아 자라는 진도 봄동은 일반 배추보다 씹는 맛이 고소하고 비타민 C와 칼슘이 풍부하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완도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완도군이 3월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전면 시행한다.

군은 2017년 12월 장보고대교 개

만 적용하던 단일요금제를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그동안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던 지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교통 복지 증진과 운수 업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이에 지난달 27일 완도군과 완도교통, 고급여행객, 신지여행 등 버스업체 대표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버스 업체의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운행 수입 감소분을 보전하고, 버스 업체는 운행 시간 준수는 승객에게 안전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어촌버스는 관내 전체 53개 노선에 28대의 버스가 운행되며, 요금은 일반인의 경우 1,000원, 청소년 800원, 초등학생 500원이다.

완도=김광수 기자

담양군 치매안심센터 개소

담양군은 지난달 27일 최형식 담양군수와 김정오 담양군의회, 읍·면 노인회, 유관기관 단체인, 각 시군 관계자,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매안심센터의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치매안심센터는 담양읍 완동길 10-5번지 여성회관내 1층에 위치하

며, 연면적 약 614㎡(186평)으로 사무실, 기억동행센터, 상담실, 검진실, 인지재활프로그램실, 어울림가족카페 등의 시설을 갖췄다.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구성해 앞으로 치매 조기검진, 환자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맞춤형 사례관

리, 치매예방프로그램, 치매인식개선 교육·홍보, 치매환자 센터 운영 등으로 환자와 가족들에게 체계적인 치매지원시스템을 구축, 치매와 관련된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군은 치매안심센터가 치매환자에 대한 통합 관리는 물론 가족의 부담 부담을 덜어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치매 윈즈포 토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밟힘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위 관리 병행